

사타이네코(佐多稻子)의 『樹々新緑』論

-芥川죽음을 통한 <再生>의 意味-

朴愛淑*

目次

- 1 머리말
- 2 집필시점에 대한 검토
- 3 자살미수의 원인과 극복
- 4 청춘시절 - 『로마(驢馬)』동인
- 5 芥川자살을 통한 <재생>의 意味
- 6 맺음말

1 머리말

쇼와초기 『로마(驢馬)』 동인을 만나 운명을 전환하게 된 사타 이네코 佐多稻子 : 1904-1998)는 자신의 청춘시절을 회상하며 『수목들의 신록』(『文芸』, 1938.4~5월)을 집필했다. 이 작품은 당시 『로마』 동인의 사상적 영향¹⁾과 그들 주변에 존재했던 아쿠다가와의 자살에 대해 그리고 있다.

프로작가로 문단에 데뷔한 사타 이네코는 1934년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이 해산된 후, 더 이상 조직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독자적으로 군국주의 시대의 거센 물결에 저항한다.²⁾ 일본문학을 혁명의 관점에서 볼 때, 천황제 군국주의 시대에 프로문학운동을 전개했

* 祥明大 日近代文學專攻

- 1) 1927년 7월 芥川龍之介를 재회하고 자살경험에 대해 묻고 난 3일 후에 芥川는 베로 날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 무렵 카페 聚樂를 그만두고 窪川鶴次郎와 함께 문예춘추사의 일을 하면서 글을 쓴다. 생활은 항상 어려웠고 방값을 지불하지 못해 쫓겨나 堀辰雄의 친구 하숙집에 페를 준적도 있었다. 稻子は 中野重治, 窪川, 西澤隆二의 영향으로 잉겔스의 『空想より科學へ』 『家族私有資産及び國家の起源』 및 레닌의 저작을 읽고 사회적으로 계급적 시점을 얻게 된다. (佐多稻子(1979), 『佐多稻子全集十八卷』, 講談社, p.499)
- 2) 1934년 2월 관현의 탄압으로 일본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이 해산되었다. 동맹해산에 대해 사타 이네코는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조직을 잃고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작품을 발표하여 군국주의 시대의 물결에 저항했다. 1934년 1월 宮本百合子, 西澤隆二가 체포되었고 사타 이네코는 이들 동료와의 관계로 坂本霧에 일주일 정도 유치된다. (『全集第十八卷』, 講談社, p.504)

던 작가들에게 轉向문제는 야만적 굴욕이었다.³⁾ 전향을 했던 작가들은 자신의 자아(自我)를 상실하고, 암묵적 작용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한다. 그들은 언론통제의 강압 때문에 진실로 원하는 소설을 쓸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작가는 프로문학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나프(全日本無産者連盟)시대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항하며 <작가적 자립>을 위한 성장⁴⁾을 모색하는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문학적 자립은 노동자를 위한 투쟁만큼이나 정신적 고통과 위기감을 느끼지만⁵⁾ 작가로서 한층 더 성숙된 『목단이 피는 집(牡丹のある家)』(『中央公論』, 1934), 『잇꽃(くれない)』(1936), 『유방의 슬픔(乳房の悲しみ)』(1937), 『수목들의 신록』(1938) 등을 잇달아 집필했다. 과거의 작품과 비교하면 계급적 사관(階級の史觀)⁶⁾을 제외시킨 독자적 창작방법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보인다.

『수목들의 신록』은 자기발전을 추구했던 여성의 사상적 변화와 내면적 성장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고바야시 히로코(小林裕子)의 주인공 「무네요의 영혼의 자각(宗代の魂の目覺め)」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⁷⁾이 있고, 고바 야시 미에코(小林三恵子)의 「모성과의 결별(母性との決別)」⁸⁾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타 이네코는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1902-1979)를 비롯한 『로마』 동인과의 만남이 문학가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들 동인중의 한사람인 구보가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 1903-1974)와의 연애에서 결혼 무렵까지를 「나의 청춘시대(我が青春の時代)」라고 했던 작가는 『수목들의 신록』에서 과거에 품었던 자신의 이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주인공 무네요는 바로 작가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수목들의 신록』에서 주인공 무네요는 자산가와의 불합리한 가부장적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自殺)로써 항쟁하고 헤어진 후, 카페의 여급이 되어 갓난아기를 부양한다. 이때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본능을 강하게 느끼고 자살미수의 고통에서 벗어나 신생

3) 武藤功(1975), 「中野重治における自己」-「轉向」から変節への奇跡, 『民主文學』, p.64

4) 1938년 評論「犯罪者一貧と無知の事件」에서 「大衆が向上を希って少し本を読むかまたは要求をするとそれにさえ罰がある」と라고 정부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무렵 전향이 줄을 이었고 전향문학도 속출하던 시기로 집필금지를 당하는 작가도 있었다. 2·26사건 이듬해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언론탄압이 극도로 심해졌다. 전향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는 마르크시즘 이론의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이 제기되었고, 계급투쟁이나 전위를 그린다든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小林裕子(1978), 「抵抗と成熟の時代」『第二卷』月報2, 講談社, p.4)

5) 1934년에 집필한 『목단이 피는 집(牡丹のある家)』에서는 창작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題材 상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것을 의식적으로 풀었다(自分を縛っていたのを、意識的に解いた)」고 하는 변화였다. 이 무렵 작가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일생생활에서 고통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조직을 잃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글을 쓰는 일생생활에서 자신의 길을 탐구했다. 『목단이 피는 집』에서부터는 더 이상 투쟁이 제재가 되지 않았다. (佐多稲子(1977), 「時と人と私のこと」(2) 『全集第二卷』, 講談社, p.417)

6) 小林裕子・長谷川啓(2005), 『佐多稲子と戦後日本』, 七つ森書館, p.15

7) 小林裕子(1996), 「『素足の娘』・『樹々新緑』」『時間と体験』, 翰林書房, p.71

8) 小林三恵子(2005), 「『樹々新緑』-母性との決別」『昭和十年代の佐多稲子』, 双文出版社, p.70

(新生)을 모색한다. 본고에서는 현실에 패배한 여성이 <재생>을 향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장면에 묘사된 아쿠다가와의 죽음을 통해 본 <재생>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집필시점에 대한 검토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작가의 주변에는 소집과 戰死가 줄을 이었고,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해 무력감이 밀려들고 있었다. 이 무렵 中野와 宮本百合子は 집필금지를 당하고, 사타 이네코는 다행히 집필금지는 모면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받는다. 프로문학 붕괴에 따른 현실의 혼돈을 수용하며 창작을 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며 집필의욕을 보였다. 따라서 중일전쟁기의 사타문학은 프로문학 이상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유방의 슬픔』과 『수목들의 신록』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1938년 집필이 더욱 곤란해져 있었던 상황은 작품의 총체적 이해를 도출하는데 상호관련이 있다. 『수목들의 신록』을 집필할 때, 전쟁이 확대되는 사회정세로 인해 『로바』 동인을 등장인물로 다루기 어려운 시국적 상황이었다.⁹⁾ 집필시기에 대해 고바야시(小林)는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지적한다.

『수목들의 신록』이 쓰여진 시기, 작가는 『로바』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나아간 자신의 문학적 출발을 확인하고, 그 길에 전념해서 걷고자 하는 각오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전시체제에 대한 무력감이 강해지면서 작가는 권력에 대한 끈질긴 저항의지를 남몰래 재확인한다. 조선의 소녀에 대한 묘사나 구시모토 그룹의 좌경을 암시하는 글에서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

(『樹々新緑』が書かれた時期、作家は『驢馬』からプロレタリア文學へと進んだ自身の文學的出發を確認し、その道を一筋に歩む覺悟をまだ捨ててはいなかった。戰時体制への無力感を強めながらも、作者は、權力への粘り強い抵抗の意志をひそかに確認し直している。朝鮮の少女の描寫や、榎本たちグループの左傾を暗示する筆つきに、それはみてとれるのである。)¹⁰⁾

9) 국민이 전쟁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품는 것조차 없애기 위해, 일체의 민주적 조직과 사상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 이미 공산당의 전국적인 조직은 파멸되었고, 1937년부터 1938년에 걸쳐 인민전선의 활동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소그룹의 당 재건운동(黨再建運動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싹트자마자 탄압의 그물에 걸려들어 대중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遠山茂樹他3名(2002), 『言論統制の強化』『昭和史』, 岩波書店, p.163)

10) 小林裕子(1996), 『佐多稻子一時間と体験』, 翰林書房, p.77

이처럼 집필시기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 모순을 어떠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형상화하는 지 파악이 가능하다. 작품의 성향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를 재확인하고 좌경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34년에 발생한 여자문제와 두 번째 여자문제로 1937년부터 2년간 지속되었던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와의 정사사건¹¹⁾이 터진 것도 1938년이다. 사타 이네코의 집필시점인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 전향의 시대적 조류와 부부간의 퇴폐, 동료들과의 연대감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일 전쟁기의 사타 문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抵抗의 원점을 탐색하는 경향이 강한¹²⁾ 측면이 있다.

『로바』 동인 시절을 나의 대학(私の大學)이라고 부를 만큼 中野重治를 비롯한 堀辰雄, 窪川鶴次郎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을 하게 된다. 외국어를 공부시키려는 구보가와와 생각에 따라 프랑스어를 배우는 기회도 갖게 된다.¹³⁾ 하지만 『수목들의 신록』에는 동인들의 문학정신인 「미와 윤리의 조화, 생활과 사상의 일치라고 하는 理想」¹⁴⁾을 충분히 도출해 내지 못한 한계점이 작가의 현실인식 태도변화의 한 단면을 상징하고 있다. 문학 활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절은 분명 작가에게 일종의 변칙적인 청춘이었다. 이처럼 청춘과 희망에 찬 시기를 『로바』 동인과의 만남에서 탐색하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가난과 싸우며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로바』 동인시절은 작가로서 글을 쓰는 고통도 따르던 반면에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준 청춘시절로 계급투쟁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나의 청춘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를 지나 계급적인 시점에 눈뜨고 글을 쓰게 된 내가 작가로서 정착하는데 하나의 괴로움을 느꼈다 해도 그것은 나의 생활방식을 뜻밖에 모색하게 되었고, 계급적 투쟁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해소되어 가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투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헤매거나 망설임 적은 없었다.

(それはたしかにわが青春と云えた。ここを通り、階級的な視点を得て、ものを書いてゆくよ

-
- 11) 1938년窪川は田村俊子と戀愛關係にあったが、秋、この情事が發覺。夫婦間の信頼なきまま、稻子は窪川と妥協し、夫婦生活を續ける。暮、田村俊子は上海にわたる。(『全集第十八卷』, p.507)
- 12) 과거의 자신을 다시 긍정함으로써 이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서 얻은 이상(理想)을 재확인 하고자 하는 모티브가 보인다. 『유방의 슬픔(乳房の悲しみ)』 『수목들의 신록(樹々新緑)』에는 특히 그것이 현저하다.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5년 이후부터 소설도 평론도 사회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파고든 작품이 많아진다. 이것은 언론통제(言論統制)의 삼엄한 시대에 대한 독자적 저항의 길이었다. (小林裕子(1978) 『抵抗と成熟の時代』- 月報2, 『佐多稻子全集第二卷』, 講談社, p.5)
- 13) 1928년 사타 이네코에게 외국어를 공부시키고 싶다는 구보가와와 생각으로 아테네·프랑스에서 외국어를 배웠다. 堀辰雄는 입학수속을 해주었고 교과서, 수업료, 교통비까지 원조해주었다. 나중에는 堀辰雄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向島의 堀자택으로 몇 번이나 방문하였고, 메리메(Mesimee, prosper)의 단편소설 『트레이드의 진주(トレードの眞珠)』를 원서로 읽어주기도 했다. 또한 堀辰雄의 소개로 渡辺とめ, 松村みね子에 의해 발행되었던 『불새(火の鳥)』에 원고를 쓰게 되었다. (『全集第十八卷』, p.500)
- 14) 앞의 책, 『佐多稻子-時間と体験』, p.78

口元だけで笑う妙に沈潜した印象などに目をとめた。(中略) 榎本の掛けている椅子のうしろに立っていたその女が、黒い、厚い榎本の髪の毛にそっと掌をのせ、軽く弾ませながら撫ぜた。いい毛ね、と言った。笠木はきょろりっと藤澤の顔を見て無遠慮に笑いだし、榎本も自分も一緒になって笑った。藤澤は相変わらず相手に視線をかえさず、ただふうむと、美しい齒の見える微笑を浮かべ、学校の制服をきちんと来ていた佐多はそれに気づかず、含んだ特有の聲で、なあに、と云ったが、すぐ、ああとうなずいて、笠木の無遠慮さを微笑した。そのことがあってから、榎本は手紙を書いた。そういう榎本のために、特にカナリヤの二階へ上って會食をする費用に、藤澤は自分から拾円の札をつくってきた。また宗代の返事は、笠木には勿論、その他の連中にも讀まれ、瀧井にも知らされた。)18)

처음 카페에서 보았던 『로바』 동인의 풋풋한 인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데, 구시모토(榎本)는 구보가와(窪川)이고 다키이(瀧井)는 나카노(中野)를 후지사(藤澤)는 니시자와(西澤), 사타(佐多)는 호리 다츠오(堀辰雄), 카사기(笠木)는 미야키(宮木)를 나타낸다. 또한 쿠노(久野)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그는 무로 사이세이(室生犀生)로 구시모토와 무네요가 결혼할 당시 중간 역할을 해 주었던 동인들의 스승적인 인물이다. 그 외에 다카츠카사(鷹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쿠다가와(芥川)의 모습¹⁹⁾을 연상시킨다. 무네요는 작가자신이며 현모양처에 길들여진 결혼에 실패하고, 자살미수를 경험한 여성이었다. 이처럼 작가는 『로바』 동인과의 운명적이고 극적인 만남을 통해 사상적 가치에 눈뜨는 거점을 마련한다.

3 자살미수의 원인과 극복

1920년(16세) 사타 이네코는 우에노(上野)의 세이료우테이(清凌亭)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왔던 芥川, 菊池寛, 久米正生, 江口渙 등 大正作家를 알게 되었다. 芥川은 자살하기 4일전 자신의 자택으로 사타 이네코를 불러 자살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잘못된 결혼 때문에 2, 3번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堀辰雄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다. 작가는 芥川の 자살이 보도되던 날, 아사쿠사의 기름 냄새나는 레스토랑 2층 방에서 혼자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히라노 겐(平野謙)은 芥川の 죽음과 小林多喜二의 타살에 의한 죽음은 사타의 작가로서의 기초²⁰⁾를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사타 이네코의 자살은 거대한 시대적 명분도 아닌 부부생활의 불행에서 발단되었다.

18) 佐多稻子(1978), 『佐多稻子全集第二卷』, 講談社, p.366 (이하 테스트 인용문은 쪽수만 표기함)

19) 佐多稻子(1979), 「小林裕子一抵抗と成熟の時代」 『佐多稻子第二卷全集』 月報, 講談社, pp.7-8

20) 平野謙(1969), 『文學運動の流れの中から』, 筑摩書房, p.74

구시모토는 『수목들의 신록』에서 무네요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카사기의 질문에 객관적 입장이 되어 그녀의 과거에 대해 말한다.

「그 여자 말이야.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더군. 굉장한 부자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병적으로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어. 결국 헤어졌나 봐. 게다가 한 번 자살을 했어 남자와 둘이서, 「저런, 사실이야, 「아니, 사실 같아, 「정사(情事)네,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식으로 한 거야, 「수면제를 먹었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깐 알겠어. 그 여자의 일종의 우울함이」

(「あの女はね、一度結婚したことがあるんだそうだ。非常な金持の家へ貰われたんだがね。男が病的なやきもちやきでね。とうとう別れたんだそうだ。しかも一度は自殺をしたんだよ。男と二人で「へえ、ほんとうかね」「いや、ほんとうらしい」「心中だね、男と一緒になら」どういう風にしたんだろう」「睡眠薬を飲んだんだ。然しその話を聞いてわかったよ、あの女の一種の暗さが、) (p.367)

수면제를 먹고 자살까지 시도한 여자에게 구시모토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들의 연애는 네 명의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무네요는 변두리 카페에서 우울함을 지닌 독특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구시모토의 연애는 네 명의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깨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화가들에게 변두리 카페에서 눈에 띄는 여자는 꽤 격심한 과거를 지니고 있고, 실제 인생의 격렬함으로 인해 무언가를 야기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격투의 의욕마저 느끼게 했다.

(そういう風に、櫛本の戀愛は四人の仲間に見守られて進んだ。そしてまた、世間の習慣や常識を破って自己の眞實にいきようとしている若い繪畫きたちにとって、この場末のカフェで目立った女は、なかなか劇しい過去を持って、實人生の荒々しさをもって何かをもたらしていた。そういう意味で格闘の意欲をさえ感じさせた。) (p.367)

위 글에서 젊은 화가들의 사상은 세상의 관습과 상식의 틀을 깨고 예술을 위해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청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앞에 격심한 인생을 경험한 여성이 등장하게 되어 그들이 추구하는 프로문학에도 연결되는 발전을 가져온다. 이 작품은 연애의 관능보다 정신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청춘시절의 여명기²¹⁾를 절묘하게 소재로 다루고 있다.

사타 이네코는 1924년(20세) 3월 마루젠(丸善)의 여점원으로 일할 때 상사의 중매로 慶応大 출신의 자산가 고히리(小堀)와 결혼한다. 하지만 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자살하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된다. 이 사건은 신문사회면에 「젊은 자산가부부 자살을

21) 塚本雄作(1987), 『労働者文學その側面』,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150

시도하다(資産家の若夫婦自殺を図る)라는 제목으로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되었다.²²⁾ 어느 정도 임신출세를 기대했던 결혼은 감당하기 힘겨운 심리적, 육체적 충격을 몰고 온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어머니의 애정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 또한 경험한다.²³⁾ 자전적 소설 『유방의 슬픔』에서 주인공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발작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3일후에 깨어나는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최초의 결혼생활의 파국에 대해 『유방의 슬픔』뿐 만 아니라, 『기둥(柱)』(1935), 『나의 동경지도(私の東京地図)』(1945) 『어느 여자의 호적(ある女の戸籍)』(1946) 등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녀에게 자살이란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배의 형국이긴 하지만, 가부장적 결혼에 대한 無言의 항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를 타파할 수준은 아니었다. 사타 이네코는 2, 3번 자살을 시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단지 불행한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자산가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자살했다는 정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숨겨진 페이지(隠れた頁)』(『婦人公論』, 1939.3-4)에서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녀의 결혼의 의미는 빈곤한 생활과 처녀시절의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아, 목표가 없는 매일의 모범직원 생활에 지쳐버린 나,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만과 반항으로 우울하고 허무감에 빠진 나, 이런 나에게 열린 창.

(ああ、目標のない模範店員の毎日の生活に、も早歩き疲れていた私、どこへむけるべきか知らぬ不満と反抗に鬱々として虚無的になっていた私、その私に開かれた窓。)24)

자신의 몸을 막연한 행복에 의지하며 편승하려던 결혼은 한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토굴과도 같았다. 대저택에서 겪는 불행한 新婚에 대해 자전(自伝)은 물론, 약력이나 성장등과 관련하여 밝히기 꺼리는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다. 그러나 계급적 시점에 눈뜬 작가는 현재의 자신을 비판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집필동기를 밝힌다. 결혼 상대자인 젊은 자산가(3,500평 규모의 주택지와 월 400만 엔 정도의 땅값)²⁵⁾는 결혼을 앞두고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아내 될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한다. 자신이 결혼 상대자로 채택되었다는 일종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런데 중매를 선 사람은 서점의 상사라기보다는 상사의 고객 중의 한사람인 K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K라는 인물은 남녀관계가 복잡한 결코 도덕적이지 못한 남자였다.²⁶⁾ K는 그 젊은 자산가의 죽은 둘

22) 『全集第十八卷』, p.498

23) 졸고(2006) 「사타 이네코(佐多稻子の 『유방의 슬픔』론-모성이테올로기의 극복」 『日本文化研究』, 동아시아 일본학회, 第17輯, p.77

24) 佐多稻子(1979), 『隠れた頁』 『全集第十六卷』 p.268

25) 위의 책, 『隠れた頁』, p.260

26) K는 처남(자산가)의 둘째 누나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내가 병중에 큰누나마저 자신의 손아귀에 넣

재누나의 남편으로 타처에서 후처를 맞이하는데, 후처의 여동생과도 관계를 맺고 자신의 처남(자산가)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첫 번째 애인이었던 젊은 자산가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으나, 주변사람으로부터 K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K의 적극적인 중매는 사타 이네코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결혼 첫날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K와의 관계를 자백하라며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남자의 병적인 감정은 깊어만 갔다. 이 때문에 작가는 우울증에 빠져 2, 3번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 빠진다. 남자는 자신의 신부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불신에 가득 차 있었다. 당시 작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혼 상대자 보다는 신분상승에 대해 희망을 걸었던 자신을 철저히 비판하고, 자신은 인생으로부터 역습²⁷⁾을 당했다고 믿었다.

자살을 극복하며 재기의 길로 들어선 무네요는 잘못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비판적이며 자신에 대한 분노는 일종의 반발로 세상을 향한다. 세속적 윤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하며 삶에 대한 애착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맞는다.

박봉의 월급쟁이 딸로 평범한 희망으로 큰 집에 시집가서 한 번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험을 했다. 그녀의 자살은 직접적으로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인생과 그녀 자신과의 관계에서 패배의 형국이지만, 하나의 항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재기하는 길은 그녀 나름대로 격렬한 힘을 요구했다. 재기의 길에서 몸을 버둥거리는 것은 이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속박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자신을 풀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그것은 환경과 생명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작용인 것이다.

(薄給な勤め人の娘で、世間並みの希望で大きい家を嫁いでゆき、そこで一度は、自分の生を自ら断ち切るような経験をしている。彼女の自殺というものが、直接には、目前の苦痛から脱れるための意味しか持っていなかった、としても、人生と彼女自分との関係では、敗北の形ではあるが、ひとつの抗争とも見られるのであった。だからその中から立ち直る道は彼女なりに激しい力を要求した。立ちかえりの道で身を揉むことはこの若い女にとっては、自ら縛っていたそれまでの自分を振りほどくことにもなっていた。それは環境と生命とのもたらした自然な作用なのであったろう。) (pp.367-368)

과거의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에 속박당하거나, 자식을 위해서 인종(忍従)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무네요는 확고한 신념으로 속박당하는 삶을 거부한다. 가부장적 결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자살이었다. 무네요의 자살미수는 인생의 패배를 의미하는 동시에

고 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K를 원망하며 병사했다. 큰누나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살림을 맡아하던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큰누나도 자식 3명을 남기고 일찍 죽고 말았다.(『隠れた頁』『第十六巻』, p.267)

27) 「結婚の失敗にきづくこと」『第十七巻』, p.431

잘못된 결혼에 대한 무언의 항쟁(抗爭)이며, 우울하고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었다. 그런데 자살미수라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망설이던 무네요는 속박(束縛)의 실타래를 혼자 힘으로 풀어가야 했다. 그런데 구시모토와의 정열적인 연애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생>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

4 청춘시대 - 『로바』 동인시절

사타 이네코는 『로바』 동인과 구보가와와의 만남을 나의 青春時代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인생의 전환점에 있다. 그의 존재는 사랑하는 상대인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히라노 겐(平野謙)은 말하고 있다.

『수목들의 신록』을 읽으면 분명한 것처럼 사타 이네코는 구보가와 쓰루지로와 만났던 처음부터 남성으로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를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그녀는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

(『樹々の新緑』の讀めば明らかのように、佐多稻子は窪川鶴治郎と出會った最初から男性としての彼を愛するだけではなく、人間としての彼を推重せざるにいらなかった。愛する人であると同時にわれを導く人であるという意識を彼女は見失うことがなかった。)28)

평범한 여성이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준 구보가와를 비롯한 『로바』 동인과의 만남의 순간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시간(美しい時間)」²⁹⁾이었다. 히라노는 문학자 사타 이네코의 운명은 『로바』 동인과의 만남에 의해 결정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³⁰⁾ 사타 이네코는 1926년 카페 홍록(紅綠)에서 『로바』 동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로바』 창간호가 발행되어 다하시(田端)의 무로사이 세이(室生犀星)의 자택에 모였던 中野重治, 堀辰雄, 窪川鶴次郎, 西澤隆二, 宮木喜久雄 등은 카페에 자주 들렀고, 이들은 사타 이네코의 신생(新生)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동인잡지 『로바』는 1926년 4월에 창간되어 1928(쇼와3년) 5월까지 총12호를 발행하고 종간(終刊)되었다. 카페에서 처음 『로바』 창간호를 보았던 작가는 목차에 나와 있던 芥川와 室生の 이름을 보고 훌륭한 잡지라고 소리쳤다. 동경의 변두리 카페에서 이러한 여급의 행동은 세속적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

28) 平野謙(1944), 『文學の流れの中から』, 筑摩書房, p.92

29) 佐多稻子(1992), 『時に佇つ』, 講談社, p.16

30) 위의 책, 『文學の流れの中から』 p.76

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게 되었다.

『수목들의 신록』에서 구시모토와의 연애의 시작은 무네요에게 격심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활기를 불어넣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한 생명의 힘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대해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도 거리낌 없는 구시모토의 젊음에 비해 무언가 가라앉은 침착함이 있었다. 무네요의 언제나 몸을 감추듯 조심스러운 태도도 그녀의 가라앉은 차분함에서 나오고 있지만, 무네요 자신은 정작 그것을 몰랐고 구시모토의 어깨 뒤에 얼굴을 기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이도 무네요는 구시모토보다 한 살 적은 23세였다. 구시모토는 그의 강경함과 애정으로 이러한 무네요를 잡아끌며 걸어가는 기세였다.

(ちょっと他に憚りのない榎本の若さに比べて、何か沈んだ落ちつきがあった。宗代の、いつとなしに身を隠すような控え目な態度も、彼女の沈んだ落ちつきから出ているのであったが、宗代自身はそれを知らず、自分は榎本の肩のうしろに顔を寄せている気持ちなのであった。年齢も、宗代は榎本よりひとつだけ下の二十三歳であった。榎本は、彼の強氣と、愛情とで、そういう宗代を自分が引っ張って歩く氣構えであった。) (p.363)

구시모토는 강한 애정으로 무네요의 싱싱한 젊음을 일깨운다. 그러나 아직 자신을 속박하는 과거의 껍질을 벗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육체적인 가뻐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순간 잠재된 정열을 일깨우며 카페에서 구시모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당돌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무네요는 평범하고 속됨을 없애려는 구시모토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구시모토의 평범하고 속됨을 없애려는 젊음에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榎本の平俗を抜こうとする若しさに惹かれるのは自然なのかもしれない。) (p.368)

무네요는 구시모토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에고이스틱(egoistic)한 독점욕에 포로가 되어 불행한 과거의 기억에서 삶으로 향한다. 그녀는 내면적으로 정신적 갈망과 치열하게 충돌하며 성장을 모색한다. 개인의 자아(自我)를 억압하는 전통적 윤리에서 벗어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구시모토의 사상에도 매료되었다. 고바야시 히로코(小林裕子)는 자신의 숙명이 깊어져야하는 굴욕감을 힘차게 박차는 강인함이야말로 사타문학(佐多文學)의 특징이라 평가한다.

세속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혼탁하지 않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근거로 세상의 상식적 오류를 밀어내는 강함, 여기에는 상식이 지닌 강

제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비약해 가는 사 타 문학의 특색이 있다.

(世間的に見ればマイナスの体験を経たために、かえって、自分の濁りのない心を動かぬ証據として世間の常識の誤りを突く、という強さ。ここには、常識のもつ強制力を十分知り盡した上で、それに屈従せず、新たな人生へと飛躍していく佐多文學の特色がある。)31)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를 원하는 구시모토의 정열은 전통적인 결혼형식의 틀을 깨고 동료들의 축복, 쿠노선생(=室生를 모델로 함)의 중간역할에 힘입어 형식적 결혼에 이른 다 가난한 화가의 집 2층을 빌려 동거생활에 들어갔으나, 이들의 결혼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결혼인 구시모토와 무네요의 결합은 당시의 상식적인 결혼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연애를 통해 무네요는 재차 살아보자는 심리적 변화를 갖게 된다. 무자각적 여성에서 성장하는 인간으로 변모한다. 자신의 억압적인 환경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과거의 충격적 심리변화를 거치며 자기발견에 이른다.32)

진실하게 살고자하는 『로바』 동인의 영향으로 작가는 정신적인 성장을 모색하는데, 한편으로는 성장을 위한 고통도 겪는다. 여성은 자신의 성장보다는 자식을 위해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부한다. 작가는 무네요를 통해 구시모토의 사랑이나 아니면 딸 미치요(みち代)를 위한 모성이냐를 놓고 방황하는 마음의 분규를 절실하게 묘사했다.

물리지 않은 유방은 다음날 딱딱하게 팽팽해져 근육이 몹시 아왔다. 그것은 흡사 무네요의 감정과 고차하며 얽힌 것처럼 아픈 유방에서 허전함을 느꼈고, 어제 자신의 손으로 안았던 아이의 중량을 자신의 피부로 그리워한다. 그러자 유방의 근육이 갈라질 정도로 팽팽해져 고통으로 인해 안색이 창백해 졌다. 이윽고 젖이 방울져 떨어지며 미지근하게 피부를 적신다.

(夜、飲ませなかった乳房は次の日はかちかちに張り切ってしまい、しんしんと筋が痛んだ。それはまるで宗代の感情と交互にもつれるかのようで、宗代は痛む乳房に空虚を感じ、昨日まで手の内に抱いた子供の重量を我が肌に戀うた。すると、乳房は筋の切れるほど尚張って行き、宗代は苦痛のために顔色を蒼くした。やがて乳がしんしんと滴り始め、ぬるく肌を濡らす。) (p.374)

31) 小林裕子(1996), 『佐多稲子—時間と体験』, 翰林書房, p.71

32) 웰스키는 자기발견의 서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페미니스트 성장소설(Feminist Bildungsroman)과 각성소설(The novel of awakening)이다. 페미니스트 성장소설은 내적세계에서 외적 세계로 지향해 가면서 사회적 자기(public self)발견의 여정을 보여준다. 각성소설은 숨겨진 여성적 자기(female self)를 찾기 위해 외적지향보다 내적인 지향의 항해를 묘사하는데, 순수하게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며 사회적이거나 공적체험이 아니다. (Rita Felski(1989),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rvard Univ. press, pp.131-138)

만 1년이 지난 딸에게 더 이상 젖을 물리지 않아도 되었고, 구시모토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카페 카나리아에서 숙식이 가능한 아사쿠사의 큰 레스토랑으로 옮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날 유방(乳房)의 허전함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무네요는 자신의 딸을 아버지와 양어머니에게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도전한다. 자신의 이상을 위해 어린 딸과의 이별은 어머니로서의 자책감과 비애감에 빠져들게 했다.

자식에 대한 사모의 감정은 신발로 밟아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것은 오히려 심해졌다. 구시모토에게 이끌리는 자신 때문에 자책하는 고통이 뒤섞여 자식에 대한 애정은 비애로 나타났다. 내 자식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것은 피부에 직접 느끼는 이쁨이다. 아이, 아이, 아이, 아! 세상에는 이토록 아이가 있었던 말인가 무네요는 처음 길에 나온 것처럼 당황하며 길을 걷지 못한다.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고 싶은 간절함, 그것은 아이와 헤어지고 처음 깨닫는 놀라움과 같은 갈증이었다. 자신과 헤어져도 자식이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네요 자신의 경우,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은 그녀를 괴로워하며 나뒹굴게 했던 것이다

(子供への思慕の感情は草履で踏み消すような具合にはゆかない。離れてきた、ということのためにそれは却って荒々しく募った。櫛本に惹かれて行く自分の故に、自責の苦痛がまじって、子供への愛情は悲哀に帯びた。我が子の顔がみたい、ということは、肌に直接感じる痛みである。子供、こども、こども、ああ、世の中にはこんなにも子供がいたのであろうか、と宗代は初めて往来へ出でたもののように戸惑いをして、道が歩けなくなるのであった。我が子の顔を、自分の手で拭いてやりたい、という願い、それは子供に離れて初めて気づくおどろくような渴えであった。自分が離れて来ても、子供が不幸になってはいはしないのを、宗代は自分の場合に充分承知している上のことなのに、愛情は彼女をのた打ちまわらせるのであった。) (p.375)

모성과의 이별에 대해 작가는 『새로운 어머니(新しい母)』(『婦人の世紀』)에서 그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어머니도 자식도 함께 살자는」 새로운 어머니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전통적인 윤리가치로 억압하는 <모성>을 거부하고 과거로부터 ‘자식을 위해서’라는 미화된 모성에 속박당하지 않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유방의 슬픔』에서 주장하고 있다.³³⁾ 또한 같은 견해로 고바야시 미에코(小林三恵子)는 「모성과의 결별(母性との決別)」³⁴⁾에서 무네요가 모성을 은폐하고 자식을 버렸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만 무네요는 기존의 가치질서인 ‘자식만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보수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모성 이데올로기의 극복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네요는 모성에(motherhood)와 성성(sexuality)³⁵⁾의 충돌에서 고통을 극복하며 자신

33) 佐多稻子(1978), 「乳房の悲しみ」『全集第三巻』, 講談社, p.293

34) 小林三恵子(2005), 「『樹々新緑』-母性との決別」『昭和十年代の佐多稻子』, 双文出版社, p.70

35) 성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성은 원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Sex)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욱 좁게는 성

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또한 사랑을 위해 구시모토를 선택하는 이유다. 하세가와 케이(長谷川啓)는 ‘모성애과 이성애로 인해 몸부림치는 갈등 속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상식의 정체를 타파하고 신생(新生)을 향한 영혼의 자각’³⁶⁾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사타 이네코는 결국 『로마』 동인을 만나고, 구보가와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문학의 길을 걸었던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절정의 순간임을 알 수 있다.

5 芥川자살을 통한 <재생>의 意味

사타 이네코는 芥川の 죽음에 대해 『수목들의 신록』과 『季節の記憶』(東京日日新聞 1936.8), 『나의 동경지도(私の東京地図)』10章 「移りゆき」(『婦人』1947.10)를 비롯하여, 80세에 집필하여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달의 향연(月の宴)』(1984)(「芥川龍之介-芥川の死」, 「河童の銀堀風のこと」, 「古いときのこと」)에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芥川の 죽음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芥川자살에 대해 밝히는 연구가 아님을 밝혀둔다.

당시 나카노는 아쿠다가와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문학청년으로 문학을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나카노가 예술에 대해 고민하던 모습은 『수목들의 신록』에도 묘사되어 있다.

「하여튼 나는 예술은 버리지 않아, 「다카 츠카사상이 사타로부터 자네 이야기를 듣고 무척 걱정하고 있다더군.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

「兎に角、僕は芸術は捨てないよ、」鷹司さんが、佐多から君の話聞いて、大変心配しているそうだよ。君に逢い度いと言ったそうだ。」(p.395)

무네요는 구시모토의 옆에서 다키이(*中野)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을 예술에 접목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구시모토가 존경하던 쿠노는 다카츠키사와 친한 관계였다. 어느 날밤 무네요는 구시모토와 함께 다하시(田端)의 역에서 다카츠키사와

적행위와 그와 관련된 해부학적 특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성별이 좀 더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면 성차(gender)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이 모든 것을 흐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성적인 것 혹은 성이 갖는 성질인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는 성(性)의 의미로 쓰고자 한다. 푸코에 있어서 이 개념에는 사회정치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도 하다. 또 섹슈얼리티의 근방에는 사랑, 에로스, 에로티즘의 개념들이 인접해 있다. 이 혼란은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성행위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자연적이면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섹슈얼리티의 특성 때문이다.(김종휘, 최혜실(2001), 『문학으로 보는 성』 김영사 pp.9-10)

36) 長谷川啓(1996), 『佐多稲子論』,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27

를 우연히 만났다.

「아아, 다카츠키사사이다」 언덕 위로 나오는 역 남쪽 출입구는 밤이 이슬하여 함께 내린 사람도 없었다. 구시모토는 겉옷자락이 넓어 보이는 아원 다카츠키사사의 뒷모습을 알아보고 무네요에게 가리키며 뒤따라갔다.

(「ああ、鷹司さんだ」坂の上へ出る驛の南口は夜更けのことであって、他には一緒に降りた人もなかった。櫛本は羽織の裾の広がって見える痩せた鷹司のうしろの姿を認めて宗代におしえ、あとを追った。) (p.396)

다카츠키사사는 몹시 야위어 보였다. 무네요는 7, 8년전 서점에서 일할 때, 다카츠키사를 볼 수 있었지만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단지 동경(憧憬)의 대상이었다. 존경하던 문학자 다카츠키사와 함께 걸어가는 구시모토의 뒤에서 무네요는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이전부터 동경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친한 관계로 만난다는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여겨졌다. 그것은 구시모토와의 결합을 매우 인생 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 (p.396)
(かつての憧憬の人に今度は近しいつながりで逢えたことを運命のめぐり合わせのようにももらった。それは櫛本との結びつきを彼女が非常に人生的に感じ始めているからなのでもあったろう。) (p.396)

무네요의 감격은 그 순간 다카츠키사의 걸음걸이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술에 취한 것처럼 심한 피로 때문인지 허공을 헤엄치듯 걷고 있었다.

다카츠키사의 큰 몸이 앞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비틀비틀 흔들리 듯 걷고 있다. 흔들리는 느낌은 상하만이 아니라, 좌우로도 흔들린다. 양쪽다리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 엉킨 것 같았다. 그것을 가까스로 지탱하기 위해 상체를 띄우며 마치 휘청거리면서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술에 취해 흐트러진 발걸음이 아니다. 공중을 헤엄치는 것처럼, 어깨에도 심한 피로가 겹쳐있다고 무네요는 생각했다.

(鷹司の背の高い身体が少し前こごみに、ひょろひょろと浮くように歩いているのだ。浮くような感じは上下だけにあるのではなく、それは左右にも揺れて見える。両方の脚がまっ直ぐに前へ出ずに、入り亂れて交わされているようだ。それを辛うじて保つために上体を浮かしているようで、まるでよろけながら跳ねているように見える。それは酒の酔いで亂れている足元ではない。宙を泳ぐようなその肩つきにも、深い疲れが見えるように宗代はおもうのであった。) (p.396)

예전의 늙름했던 다카츠키사의 모습과 비교하여 형편없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무네요는 막연하지만 예술세계의 격심함을 느꼈다. 다키이와 구시모토와 논의했던 예술의 동요

에 초점을 두며, 다카츠키사의 모습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았다. 무네요는 점차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구시모토의 영향으로 계급적 사상(思想)에 눈뜨다. 추운 겨울밤 츠크바 오로시(筑波嵐: 관동지방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가 불어 발가락이 얼어붙는 정류장 돌계단에서 아사쿠사(淺草)의 변화가로 옛을 팔러가는 조선(朝鮮)의 여자와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무네요가 특히 조선의 여자와 소녀에게 주의가 끌리게 된 것은 구시모토와 함께 읽었던 그 무렵의 독서경향이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宗代が特に朝鮮の女や少女に注意を惹かれるのは、榎本といっしょに読み出したその頃の讀書の傾向が影響をなしているに違いないのであった。) (p.397)

이것은 좌경화를 암시하는데, 1938년이라는 시국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작가의 반시국적 자세를 엿보게 한다. 쇼와초기는 점차 광포한 시기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신시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알 수 없는 위협과 공포감을 수반했고 지식인의 위기위식을 느낀 芥川은 자살하기 3일전 사타 이네코를 자택으로 불러 자살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했다. 작가는 『수목들의 신록』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7월로 들어선 어느 날 밤 무네요는 구시모토와 함께 다카 츠키사 류노스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천에 영성한 이가스리(잔무늬가 있는 천)의 얇은 비단이 무네요의 조심스러운 뉘를 안으로 간직한 인상이 돋보였다. 다카츠키사 류노스케는 구시모토의 그림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었는데, 회색의 홀웃에 좁은 띠를 맨 야윈 허리부분이 불안정하게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다카츠키사의 지친 인상은 한층 깊었다. 그것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니라 신경과 육체에 먹히고 있는 무엇이었다. 노랗고 거뭇한 치아가 흔들흔들 죄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작은 동굴처럼 보였다. 다카츠키사는 부들부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무네요 앞에 있는 컵에 사이다를 따랐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무네요의 얼굴로 옮기고, “또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무네요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구시모토를 꺼리는 기분으로 다카 츠키사의 무례함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었죠?” 그리고 “아아, 그래요”하고 끄덕이며 수면제에 대해 간단한 비평을 했다. “몸은 괜찮아요?” 무네요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것은 다행이군요하고 끄덕인다. 호의 있는 어조였고, 다시 거리감 있는 평온함이기도 했다.

(7月にへ入ったある夜、宗代は榎本といっしょに鷹司良介の書齋に坐っていた。黒地に粗い井縞のある明石が宗代の控え目な、ものを内へ潛めた印象をきわ立てていた。鷹司良介は榎本の畫の批評をしていたが、灰色の帷子に細紐を一本締めていて、瘦せた腰のあたりが不安定に見えた。いつかの夜の鷹司の疲れた印象は、いっそう深かった。それはもう疲れなどではなく神經と肉体へ食い込んでいる何かであった。黄色く黒っぽい齒が、ガクガクみんな動いているよう

にも見え、小さな洞窟のように見えた。鷹司はぶるぶるこまかく慄える手で宗代の前のコップにサイダーを注いだ。それから視線を宗代の顔へ移して、「もう死にたい、とおもう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か」宗代は微かに笑って首を振った。榎本へ憚る氣持で、鷹司の不躰さをおもいながら。「何を飲んだのです」そして、ああそうとうなずいて、睡眠薬の簡単な批評をした。「身体はじょうぶですか」宗代が丈夫だと答えるのを聞くと、それは大変いいですね、とうなずいた。好意のある調子でもあったし、再び距離の感じ出される平靜さでもあった。) (p.401)

다가 츠카사는 무네요에게 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구시모토 앞에서 약간의 저항감을 나타내며 “아니요”하고 고개를 저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작가는 기이(奇異)하게 느꼈을 뿐,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자살의도를 감추기보다는 자살의도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있었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사타 이네코는 芥川죽음에 대해 신중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있다. 자살미수를 했던 한 인간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을 불렀고, 의외로 평안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경멸의 감정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충격과 비애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한다.³⁷⁾ 어쩌면 자신의 평안한 표정에서 죽음에 임박한 그는 실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했다.

대정에서 쇼와로 들어온 해를 나 자신에게 갖다 대어 말한다면, 그것은 내 생애에서 재생의 시기에 해당된다. (大正から昭和へと移った年を私自身にひっつけて云えば、それは私の生涯の、再生ともいう時に当たっていた。)³⁸⁾

1938년 전시체제 하에서 작가는 구보가와를 통해 프로작가로 성장해온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가 츠카사의 자살로 잠 못 이루던 새벽, 구시모토는 무네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화가의 집 현관 바깥의 단청나무가 이슬에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그는 난간 기둥(擬宝珠)위에 구부리더니 그녀에게 손짓을 했다.

메미의 유충이 허물을 벗고 있는 중이었다. 투명하게 들어박힌 것처럼 부드러운 녹색으

37) 아쿠다가와의 죽음의 의미를 찾는 동인들은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삶의 방법을 찾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이미 있고, 나카노 시게하루는 아쿠다가와의 죽음이전의 입장을 거기에 두고 행동했다. 그 영향인지 서로가 탐구하는 방향은 저절로 프롤레타리아 사상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나도 프롤레타리아 영향을 받고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시자와와 구보가와, 미야키, 그리고 내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에 연결된 것은 그리고 나서 멀지 않아서였다. 나의 昭和史의 최초의 충격이었던 아쿠다가와의 자살은 나에게 시대 그 자체의 격렬한 전환을 느끼게도 했다.(佐多稻子(1985), 『芥川龍之介の死』『月の宴』講談社 p.206)

38) 위의 책, 『月の宴』講談社, p.203

로 이미 상체부분이 외부공기에 나와 있다. 눈에는 띄지 않는 진진방식이지만 그것은 그 대로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져, 삶의 행위의 순간으로도 보였다. 귀여운 투구처럼 껍질은 아직 진주 빛을 띠고 있어 아름다웠다.

(蟬の幼虫が殻を脱けるところなのであった。透きとおるような、またこもるような柔らかい緑の色ですでに上体だけ外の空気に触れている。目にはつかぬ進み方であるが、それはそのまま時のきざみのようにも見え、生のいとなみの瞬間にも見えた。可愛い兜のような殻はまだ眞珠の色をしていて美しかった。) (p.402)

무네요는 자신의 성장을 매미의 유충(보통 유충은 6-7년 동안 땅속에서 지낸 뒤에 성충이 되어, 1-3주 만에 죽음) 탈피에 은유하며 맑고 순수한 이념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카츠키카사 즉 아쿠다가와의 자살에 대해 동료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작가는 ‘결국 자신의 인생에 패배했다’³⁹⁾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을 지닌 그녀는 자신의 존립(存立)의 이유를 깨달았고, 쇼와초기 프로문학 사상을 받아들이며 <재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사타 이네코의 자전적 소설 『수목들의 신록』을 통해 현실에 패배하고 자살 미수를 경험한 여성이 세속적 윤리를 타파하며 <재생>을 위해 도전하는 과정과 芥川자살을 통해본 <재생>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중일전쟁기 언론통제가 삼엄하여 소재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절정의 순간이었던 『로마』 동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재확인 하고자 했다. 작가는 구보가와를 비롯한 『로마』 동인의 영향으로 자기발전을 추구하며 사상적 변화와 내면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수목들의 신록』에서 무네요는 세속적인 윤리를 타파하고 구시모토와의 결혼에 이르는 근대여성의 새로운 연애와 이성애에 대한 사랑과 모성애의 고통스런 갈림길에서도 자신의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 구시모토의 정열은 무네요의 정신적 자각을 이끌어내며 인생의 패배라는 굴욕감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연애를 통해 재차 삶을 살아보자는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과거의 무자각적 여성이 아닌 성장하는 인간으로 재생을 지향한다. 무네요는 구시모토와 그의 동료들의 영향으로 좌익화되어 어느 날 문득 거리에서 바라본 조선의 여인과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1938년이라는 집필시점에서 볼 때 반시국적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렵 다카츠키카사의 형편없이 변해버린 모습을

39) 佐多稻子(1978), 「季節の記憶」, 『佐多稻子全集第十六卷』, 講談社, p.102

보고 무네요는 예술세계의 격심함을 느낀다. 다카츠키카사는 자살하기 전에 무네요를 자택으로 불러 자살에 대해 용의주도하게 질문하며 확인했다.

당시 아쿠다가와 죽음은 문단과 지식인에게 충격을 주었고, 『로바』동인의 나아갈 방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자살을 경험했던 작가는 아쿠다가와의 죽음에 대해 결국 자신에게 패배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영혼의 성장을 가져온 자신의 <재생>을 긍정하는 신선한 생활 감각 때문이며, 이러한 자신의 성장과정을 매미의 유충에 비유하며 순수하고 밝은 이념에 대한 에너지가 충만했던 청춘시절임을 상징적으로 은유하고 있다.

【參考文獻】

- 김종휘, 최혜실(2001), 『문학으로 보는 성』, 김영사, pp.9-10
- 佐多稻子(1978), 『佐多稻子全集第二卷』, 講談社 텍스트
- 佐多稻子(1978), 『佐多稻子全集第三卷』, 講談社, p.233
- 佐多稻子(1979), 『季節の記憶』『佐多稻子全集第十六卷』, 講談社, p.102, p.267 p.268
- 佐多稻子(1979), 『佐多稻子全集十八卷』, 講談社, p.75, p.156, p.499 p.504 p.506
- 佐多稻子(1985), 『芥川龍之介の死』『月の宴』, 講談社, p.203, p.205
- 佐多稻子(1997), 『作家の自伝』34, 日本図書センター, p.270-271
- 佐多稻子(1978), 『月報2 (小林裕子—抵抗と成熟の時代)』『佐多稻子全集』, 講談社, p.4
- 佐多稻子(1992), 『時に佇つ』, 講談社, p.16
- 小林三恵子(2005), 『昭和十年代の佐多稻子』, 双文出版社, p.70
- 小林裕子(1996), 『時間と体験』, 翰林書房, p.71, p.77, p.78
- 小林裕子·長谷川啓(2005), 『佐多稻子と戦後日本』, 七つ森書館, p.15
- 遠山茂樹他3名(2002), 『言論統制の強化』『昭和史』, 岩波書店, p.163
- 塚本雄作(1987), 『労働者文學その側面』,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150
- 長谷川啓(1996), 『佐多稻子論』,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p.27
- 平野謙(1959), 『昭和文學史』, 筑摩書房, p.16
- 平野謙(1969), 『文學の流れの中から』, 筑摩書房, p.76, p.92
- 武藤功(1975), 『中野重治における自己』-『轉向』から変節への奇跡』『民主文學』, p.64
- Rita Felski(1989), Beyond Feminist aesthetics, Havard Univ. press, pp.131-138

要 旨

本稿では、佐多稲子の自傳小説『樹々新緑』を通じて結婚生活に敗れて自殺未遂を経験した女性が世俗的な倫理を打破して「再生」のために挑戦する過程と、芥川自殺を通じて見た「再生」の象徴的な隠喩について考察した。

日中戦争期中は厳しい言論統制で作品の素材選擇に自由ではなかった作家は『樹々新緑』で自分の人生の中で一番幸せだった絶頂の瞬間と言える『驢馬』同人との出會いを描くことで、自分の理想を再確認しようとした。作家は窪川と『驢馬』同人の思想的な影響によって、内面的にも成長するようになった。作家は、主人公宗代を通して世俗的な倫理を打破して榊本と結婚する近代女性の新しい戀愛を見せている。宗代は、自分の成長の道を選ぶために、理性愛と母性愛の分かれ道で苦しんでいたが、榊本の強い情熱は宗代の精神的な自覺を導き出して人生の敗北という屈辱感を乗り越える役割をした。榊本との戀愛は「再び生きてみよう」という心理的な葛藤を呼び起こして、過去の無自覺的な女性ではなく、成長する人間として「再生」を志向する。宗代は榊本と彼の仲間達の影響によって左翼化され、被抑壓民族の朝鮮の女と少女に関心をもつようになった。これは1938年という執筆時点から見る時、確かに反時局的な抵抗意志に違いないと思われる。

榊本達の新しい思想に影響を受けた宗代は、鷹司の呼びで彼の自宅を訪問した時、自殺について用意周到な質問をした。何故そういう質問をするか全然氣が付かなかった宗代は、彼が自殺した翌日の朝、自分の成長を蟬の幼虫に比喻して純粹で明るい理念に満ちていた事を象徴的に隠喩している。結局、文壇と知識人に衝撃を与えた芥川の自殺は、『驢馬』同人の方向を進める動機になった。新しい社會に對して認識しはじめた佐多稲子は、芥川(=鷹司)の死について人生に敗北したと見た理由は言うまでもなく、「再生」の道に入った新鮮な生活感覺のためであった。

キーワード：再生、『驢馬』同人、青春時代、自殺、言論統制、芥川、戀愛

투 고 : 2006. 2. 28
1차 심사 : 2006. 3. 11
2차 심사 : 2006. 4. 1

住 所 : (137-89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9-6호 301호
電 話 : 02-574-5419
e-mail : whatami04@hanmail.net